

키워드로 되돌아본 2018년 동남권 경제

백충기 연구위원(cgbaek@bnkfg.com)

2018년 동남권 경제에서 가장 주목받은 키워드는 일자리였다. 부진했던 지역 고용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된다. 2위는 중소기업, 3위는 수출, 4위는 자동차, 5위는 조선으로 조사되었다. 지역 주력산업 부진이 지속되고 수출이 감소하면서 이와 관련한 키워드가 5위권 이내에 주로 포함됐다.

6위는 주택가격 등락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되며 부동산이 선정되었고 7위는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지역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 무역전쟁으로 조사되었다. 8위는 소상공인, 9위는 창업, 10위는 금리가 선정되었다.

2019년 키워드 전망에서는 조선이 1위를 차지했다. 업황회복을 통해 지역 최대 산업이라는 과거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2위는 부동산, 3위는 일자리, 4위는 남북경협, 5위는 제2신항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신공항, 자동차, 남부내륙고속철도, 스마트팩토리, 최저임금 등이 내년도 10대 키워드에 포함됐다.

2018년 동남권 경제 10대 키워드

2018년 한 해 동안 동남권 경제에서 가장 주목받은 키워드는 ‘일자리’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년중 부진했던 지역의 고용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파악된다.

2위는 ‘중소기업’, 3위는 ‘수출’, 4위는 ‘자동차’, 5위는 ‘조선’ 순으로 조사되었다. 지역 주력산업 부진이 지속되고 수출이 감소하면서 이와 관련한 키워드가 5위권 이내에 주로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6위는 주택가격 등락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되며 ‘부동산’이 선정되었고 7위는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지역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 ‘무역전쟁’으로 조사되었다.

8위는 경기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이름을 올렸으며 9위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스타트업 증가 등의 영향으로 ‘창업’이 차지했다. 마지막 10위는 기업 및 가계부채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면서 ‘금리’가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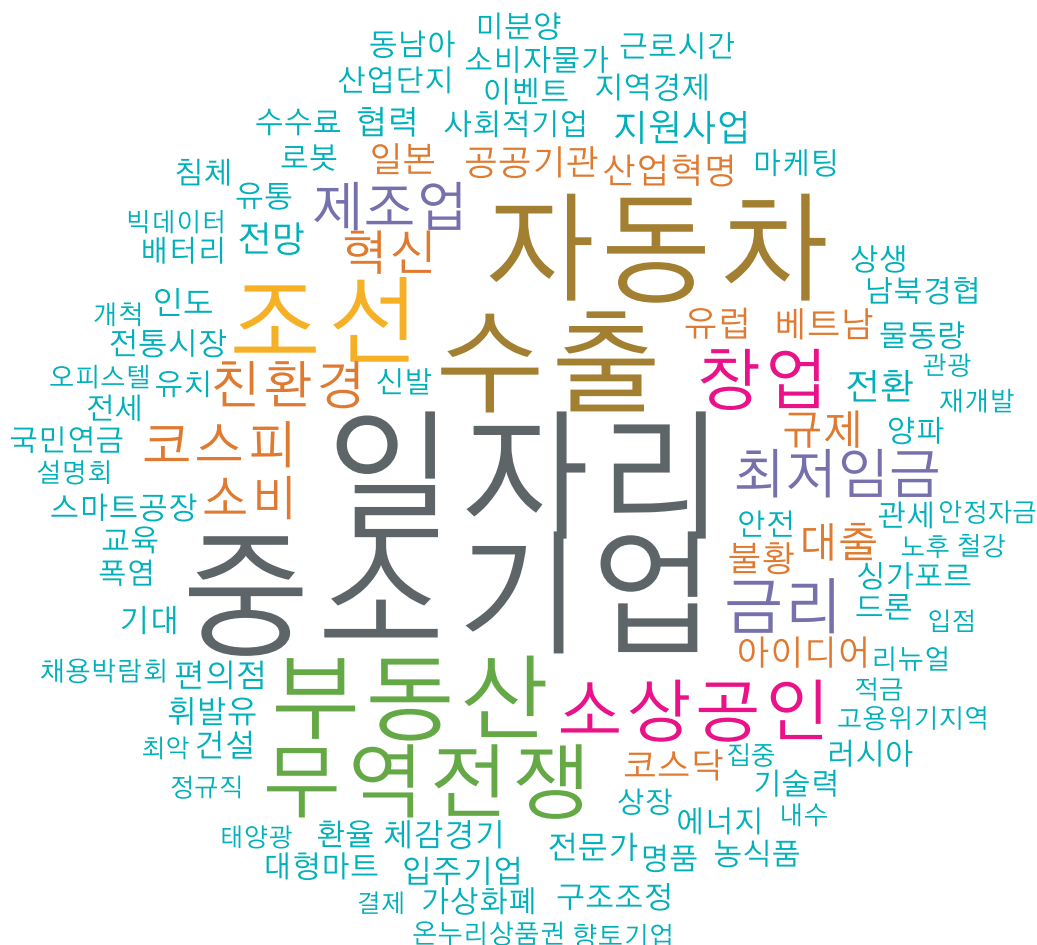
2018년 동남권 경제 10대 키워드

순위	키워드	순위	키워드
1위	일자리	6위	부동산
2위	중소기업	7위	무역전쟁
3위	수출	8위	소상공인
4위	자동차	9위	창업
5위	조선	10위	금리

본 연구는 키워드 추출을 위해 문자로 된 데이터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얻어내는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법을 활용하였다. 분석대상은 2018년 1월부터 11월중 부산, 울산, 경남 주요 지역신문 경제면에 게재된 총 13,158건의 기사이다.¹⁾

분석결과를 시각화 한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워드 클라우드는 단어의 빈도를 구름모양으로 표현한 그림으로서 빈도수에 따라 글자의 크기와 색깔이 다르게 표현되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18년 동남권 경제 워드 클라우드



1) 동남권 10대 키워드 분석은 BNK금융지주 디지털혁신센터에서 수행

1위 : 일자리

‘일자리’가 1위를 차지한 것은 금년중 지역의 고용여건이 악화된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8년 10월말 현재 동남권 일자리 수는 401만 7천개로 지난해 10월말 대비 5천개(0.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 취업자수 증가율 기준으로 볼 때 최근 5년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수가 같은기간 10.6% 감소하며 가장 큰 폭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다음으로 건설업(-6.0%), 제조업(-0.7%) 순으로 축소되었다. 지역별로는 경남(1.1%)이 농림어업 및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시현했으나 울산(-1.5%) 및 부산(-0.4%)은 제조업 부진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다.

2위 :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2위에 오른 것은 내수 및 수출 부진으로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이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올해 동남권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²⁾의 경우 73%(1~9월 평균)에 머물며 정상가동률 수준(8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동남권 제조업 생산의 경우 1~10월중 전년동기대비 3.2% 감소하면서 2013년 이후 6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금년중 조선(-12.5%), 금속(-6.8%), 철강(-3.7%), 화학(-3.2%) 등 대부분의 주력산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 업황 BSI³⁾는 같은기간 평균 62.6p로 전년동기대비 2.6% 감소하며 기준치(100.0p)를 여전히 하회하고 있다.

2) 평균가동률은 보유 생산설비의 월간 생산능력대비 해당월의 평균 생산량 비율을 의미

3) BSI(Business Survey Index, 기업경기실사지수)가 100 미만인 경우는 기업경기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업체수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수보다 많음을 의미함

3위 : 수출

3위 키워드로 ‘수출’이 선정된 것은 동남권 경제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⁴⁾이 금년중 대외여건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데 기인한다. 금년 1~10월중 전국은 전년동기대비 6.4%의 수출 증가세를 시현했으나 동남권은 같은기간 큰 폭으로 감소(-14.9%)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동남권 5대 수출품⁵⁾중 자동차부품(1.9%) 및 석유제품(33.7%)이 금년중 증가했으나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61.4%), 레일및철구조물(-62.8%), 자동차(-0.6%)는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수출 증가세를 시현한 울산(3.9%)과 달리 경남(-38.2%)과 부산(-1.9%)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위 : 자동차

‘자동차’가 4위를 차지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역성장을 견인해왔던 자동차 산업의 침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사드보복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자동차 산업은 금년중 국내 완성차업체의 실적부진과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 중견 부품기업 부실 등 일련의 부정적 사태까지 겹치면서 우려가 높아졌다.

하지만 동남권의 경우 하반기(7~10월 기준) 들어 현대차 수출개선 등에 힘입어 생산이 전년동기대비 12.4% 늘어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타 지역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기간 호남권(-9.7%)과 수도권(-4.4%)은 기아차, 한국GM 등 일부 업체의 부진심화 등으로 생산 감소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4) 동남권의 수출의존도(=수출액/GRDP)는 47.7%로 전국 평균(30.2%)을 크게 상회(2016년 기준)

5) 동남권 5대 수출품 순위는 1위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2위 석유제품, 3위 자동차, 4위 자동차 부품, 5위 레일및철구조물 순위(2017년 기준, MTI 3단위)

5위 : 조선

‘조선’이 5위로 선정된 것은 오랜기간 부진했던 조선업 생산이 내년에는 6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금년 1~10월중 국내 조선업은 전년동기대비 71.0% 증가한 1,026만CGT의 선박을 수주하며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시현하고 있다.⁶⁾ 한국이 전세계 선박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기간 27.3%에서 44.5%로 상승하며 중국을 밀어내고 1위로 올라섰다.

다만 수주와 생산간 시차로 인한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금년 1~10월중 동남권 조선업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15.2% 감소하며 2014년 이후의 마이너스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생산지수 평균도 55.9p로 나타나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3년(130.9p) 생산수준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6위 : 부동산

6위 키워드로 ‘부동산’이 선정된 것은 동남권 아파트매매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2017년 10월 이후 마이너스로 전환된 동남권 아파트매매가격은 금년들어 하락 폭이 더욱 확대되었다. 2018년 1~10월중 아파트매매가격 하락률은 경남이 전년동기대비 -6.3%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울산(-5.2%), 부산(-0.9%) 순으로 나타났다.

동남권 부동산시장이 단기간내 활력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분양 물량이 급증한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 등으로 수요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내년 입주물량⁷⁾이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급물량 확대에 따른 가격 하방압력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6) 금년 1~10월중 중국의 선박수주량은 전년동기대비 4.3% 감소하였으며 일본은 24.4% 증가

7) 2019년 동남권 입주예정물량은 7만 4천호에 달하며 금년 수준(6만 8천호)을 크게 상회할 전망

7위 : 무역전쟁

7위로 ‘무역전쟁’이 선정된 것은 금년 4월부터 본격화된 미중 양국의 상호 관세 보복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결과로 보인다. 최근 미중 양자 회담에서 90일간 유예기간 합의를 도출했으나 무역긴장은 쉽게 해소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분쟁으로 글로벌 교역량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동남권 총수출의 약 25%를 차지하는 최대 수요국이라는 점에서 지역경제가 받는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자동차, 기계, 철강 등 동남권 주력 수출품목이 주로 양국의 내수용 품목이라는 점에서 지역 수출이 받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일부 상존하고 있다.

8위 : 소상공인

‘소상공인’이 8위를 차지한 것은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소상공인⁸⁾ 매출실적 BSI는 금년 1~10월중 평균 65.2p(전국기준)로 기준치 100p를 크게 하회했다.

이와함께 최저임금제, 근로시간제 등의 정책시행도 비용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저임금의 경우 지난해 6,470원에서 올해 7,530원으로 역대 최대 인상률(16.4%)을 기록하였으며 내년에도 10.9% 인상(8,350원)이 예정되어 있다.

8) 소상공인 기준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인 사업자(2016년 전국 사업체조사)임. 동남권 소상공인 사업체수 비중은 84.9%, 종사자수 비중은 32.0%에 달함

9위 : 창업

9위 키워드로 '창업'이 선정된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혁신형 스타트업이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하는 등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민간부문에서도 국내 대기업들이 최근 3년간 약 1조원 규모로 스타트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남권의 창업동향을 살펴보면 2017년중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12만 9천개의 기업이 창업했으며 금년에도 증가세는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동남권 창업기업의 2년 생존율이 49.2%에 그치고 있어 혁신적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제반지원 정책이 중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10위 : 금리

'금리'가 10위에 오른 것은 미 연준이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가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와 시기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금년 11월 한국은행은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금리격차에 따른 자금이탈 우려 등을 반영하여 기준금리를 1년 만에 1.5%에서 1.75%로 0.25%p 인상하였다.

내년에도 금리인상을 둘러싼 관심은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부채 및 한계기업⁹⁾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가계부채는 2018년 3분기말 1,514조원을 넘어섰으며 만성적 한계기업¹⁰⁾ 비중도 지난해 이미 10.4%에 달했다.

9)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미만인 기업

10) 만성적 한계기업은 현재 한계기업중 과거에도 한계기업으로 선정된 경험이 있는 기업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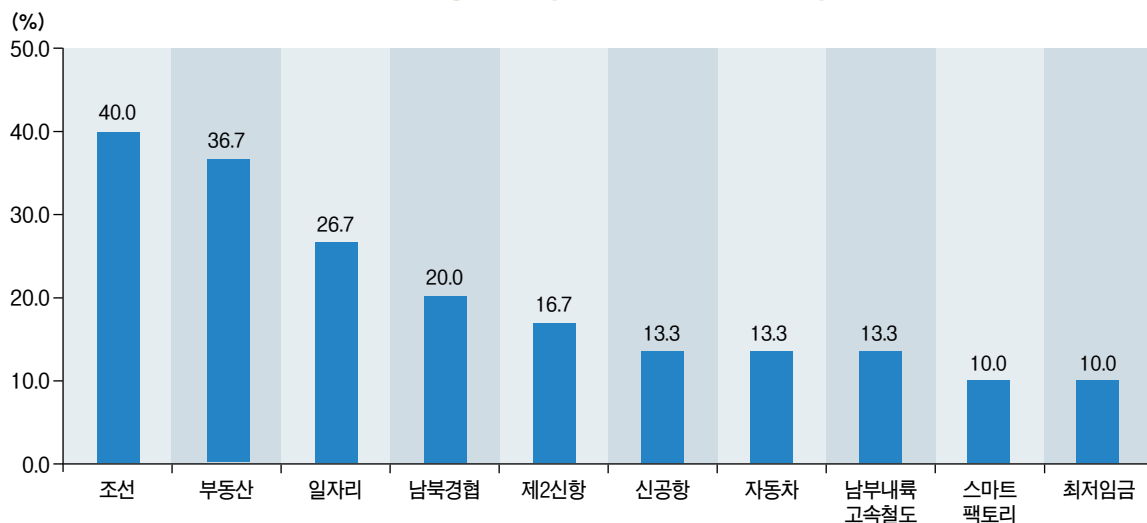
2019년 동남권 경제 10대 키워드 전망

지역경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¹¹⁾한 결과 내년도 동남권 경제에서 가장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키워드는 ‘조선’으로 나타났다. 업황회복을 통해 지역 최대산업 조선이 과거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결과이다. 전체 응답자중 40%가 2019년 이슈 키워드로 지목했다.

2위 키워드는 ‘부동산’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가격 하락세 지속여부 및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가능성 등이 주목받고 있는데 기인한다. 올해 1위를 차지했던 ‘일자리’의 경우 3위로 선정되어 계속해서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4위는 ‘남북경협’, 5위는 ‘제2신항’으로 조사되었다. 남북경협이 현실화될 경우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 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중 결정될 부산항 제2신항 입지문제도 크게 주목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외에도 신공항, 자동차, 남부내륙고속철도, 스마트팩토리, 최저임금 등이 2019년 10대 이슈 키워드¹²⁾로 전망됐다.

2019년 동남권 경제 10대 키워드 전망



주 : 비중은 응답자수 기준(중복허용)

자료 : 지역 경제전문가 30인 설문조사 결과

11) 동남권 주요 대학, 연구소 및 경제유관기관의 전문가(16개 기관, 30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12) 기타 의견으로 공공기관 이전, 혁신형 공공병원, 인공지능, 금리인상, 근로시간제 등이 제시

[참고] 2018년 동남권 경제 키워드 분석 방법

분석 개요

- 분석대상 : 부산, 울산, 경남 주요 지역신문 경제면 기사 13,158건
- 대상기간 : 2018.1.1. ~ 2018.11.29.
- 분석기관 : BNK금융지주 디지털혁신센터

텍스트마이닝

- 정의 : 문자로 된 데이터에서 가치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분석기법
- 분석도구 : R 패키지
- 분석 process : 단어의 형태소를 추출한 후, 빈도분석과 연관분석을 수행
 - 형태소 분석 : 문장을 구성하는 어절들의 품사 파악
 - 빈도 분석 : 명사, 동사, 형용사 등 의미를 지닌 품사의 단어를 추출하여 각 단어가 등장하는 빈도수 분석
 - 연관 분석 : 각 단어가 한 문장에서 공동으로 출현하는 빈도를 추출하여 단어의 상호 연결성 분석
- 분석결과 : 워드클라우드와 연관어 네트워크 등을 통해 시각화
 - 워드클라우드(Word Cloud)
 - : 단어 빈도를 구름모양으로 표현한 그림. 빈도수에 따라 글자의 크기와 색깔이 다르게 표현되기 때문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 보유
 - 연관어 네트워크
 - : 두 단어가 한 문장에서 동시에 나타날 경우 해당 단어를 연결하고 동시에 출현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단어를 연결하는 선은 굵고 위치는 가깝도록 표현하기 때문에 단어간 연관성 파악이 용이

[참고문헌]

부동산 114, www.r114.com

산업통상자원부, “미중 무역분쟁관련 실물경제 점검회의,” 2018.7

중소기업중앙회, www.kbiz.or.kr

_____,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남북경협 인식조사,” 2018.10

통계청, www.kosis.kr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18.10

Slige, J., & Robinson, D. “Text mining with R : A tidy approach,” 2017

BNK경제인사이트 발간목록

2014

0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남권 수출의 변화와 시사점
06	부산지역 아파트 시장 동향과 전망
07	글로벌 해운시장 전망과 동남권 조선업의 과제
08	동남권지역의 고용구조 변화와 시사점
0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엔화환율 동향과 전망
10	동남권 지방은행의 그룹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11	2015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월드클래스 300기업의 특징과 지역기업에 대한 시사점

09	동남권지역 대출 및 예금시장 동향
10	동남권지역 소매판매 동향 및 특징
11	2017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동남권 수출 변화 및 시사점 : 최근 5년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2015

01	G2경제 항방과 동남권 경제에 대한 시사점
02	최근 국제금융시장 진단과 시사점
03	동남권의 중남미 교류 현황과 과제
04	지역경제 혁신의 동력 - 사물인터넷
05	동남권 자동차산업 현황과 과제
06	동남권지역 서비스업 현황
07	최근 기업금융 현황
08	중국경제 전망과 동남권 경제에 대한 시사점
09	동남권지역 주택시장 현황
10	동남권 창업생태계와 발전과제
11	2016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경쟁력 우위 조선해양기자재업체의 특징

2017

01	동남권 아파트 가격 동향 및 전망
02	4차 산업혁명과 동남권 일자리
03	동남권 기업의 인도차이나반도 진출현황 및 시사점
04	글로벌 환율동향과 동남권 경제
05	원자재시장 동향 및 시사점
06	조선산업 동향 및 향후 과제
07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동남권의 미래
08	동남권 주력산업 수출동향과 전망
09	동남권 산업생태계와 향후 과제
10	인구구조 변화와 동남권의 과제
11	2018년 동남권 경제전망

2018

01	동남권 수출과 지역경제
02	동남권 자동차 부품산업 동향과 전망
03	동남권 부동산 시장 점검
04	동남권 서비스업 고용 변화
05	동남권 뿌리산업 현황 및 시사점
06	동남권 100대 기업 변화
07	동남권 기계산업 현황 및 전망
08	동남권 철강산업 현황 및 시사점
09	최근 10년간 지역금융시장 변화 분석
10	조선산업 동향 및 향후 전망
11	2019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18년 동남권 경제

2016

01	중국경제에 대한 최근의 시각
02	회사채 시장 동향 분석
03	10대 신흥국(중국제외)에 대한 동남권지역 수출 분석
04	동남권지역 건설업 분석
05	한국형 양적완화와 구조조정
06	주요국 통화 환율 동향과 전망
07	브렉시트와 지역경제
08	동남권 상장기업 경영실적 분석



그가 건넨 건 우산이었지만 제가 받은 건 큰 응원이었습니다

세 번째 면접날, 잘 되리란 희망보단 지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잠도 설치고 긴장도 되고 날씨가 무거웠죠.
막 도착하려는데 급기야 바깥까지. 속살해서 눈물 나기 일보 직전인데...
원 직장남이 우산을 쓰도록 주고 뛰어가더라고요.

**청년들의 희망이 젖지 않도록
꿈은 펼칠 수 있도록**

**BNK금융그룹
우산나눔 캠페인**

생각지 못한 비가 내릴때 BNK에 오시면 누구에게나 우산을 빌려드립니다.
언제나 편하게 빌려쓰시고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따뜻한 마음을 전하세요.
하나의 우산에서 모두의 우산으로, 한 사람의 마음으로 모두가 행복한 세상-
BNK금융그룹이 만들어갑니다.

BNK 금융그룹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BNK 캐 피 탈 BNK 투자증권
BNK 저축은행 BNK 자산운용 BNK 신용정보 BNK 시 스 템

BNK BNK금융지주

제2018-12호

신고번호 부산남, 라00006

신고일자 2016년 10월 14일

발 행 인 김지완

편 집 인 김성주

발 행 처 BNK금융지주 (www.bnkfg.com)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문현동)

연 락 처 Tel : 051-620-3180 Fax : 051-620-3199

인 쇄 애드벤처

2018년 12월 26일 발행

BNK금융지주 홈페이지에서 BNK경제인사이트 뿐만 아니라
경제 및 금융분야의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